

## 중학생의 흡연경험과 자아관 변화 연구

송 연 이\*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한국금연운동협의회의 보고서(2005)에 따르면 남자 중학생의 흡연율은 2000년 7.4%까지 증가 하였다가 2004년 2.4%까지 감소한 후 2005년에 4.2%로 증가 하였다. 여자 중학생은 2000년 이후에는 2% 내외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다소 증가한 3.3%이었다. 최근 청소년의 현재 흡연률 조사에서도 중학교 남학생 전체 흡연률은 2005년 9.6%, 2006년 9.3%, 2007년 11.3%, 여학생 흡연률은 2005년 6.3%, 2006년 5.9%, 2007년 6.6%로 2006년 다소 감소하였다가 2007년에 증가하였다. 학년별 흡연률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남녀 모두 학년이 높아질수록 흡연률이 상승하였다. 2007년 남학생의 경우 중학교 1학년은 6.6%, 2학년 11.5%, 3학년 15.6%, 여학생은 중학교 1학년 5.1%, 2학년 6.3%, 3학년 8.2%이었고, 고등학생의 흡연률도 중학생에 비해 더욱 상승하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계속해서 흡연률이 증가하였다(대구가톨릭대학교와 질병관리본부, 2008).

이러한 청소년기의 흡연률 상승은 급격한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경험하게 되는 청소년의 정서적인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정서적인 상태는 대부분 일시적인 과도기적 현상이지만, 정서적 불안상태가 계속 지속 되면, 여기서 벗어나기 위하여 우울증, 정서장애, 정체성

장애, 약물남용, 자살, 가출, 도벽, 폭력 등과 같은 다양한 정신장애와 비행 그리고 범죄행위로까지 발전될 수 있으므로 정서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대인관계, 사회적 적응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한상철 등, 2001). 김현옥과 전미숙(2007)의 연구에서 우울증상 경험률, 자살 계획률, 시도율 등이 비흡연 청소년에 비해 흡연 청소년에게서 높았으며, 김영미(2005)의 연구에서도 음주와 흡연을 동시에 행하는 청소년의 경우 가출, 교직원반, 비행, 유흥업소 출입 등의 문제행동과의 상관성이 높았다.

Kitayama와 Markus에 의하면 자아관이라 정의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독특성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의 나에 대한 이해는 정서적 안녕감과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감에 영향을 주게 되며(박선영, 2005년에 인용됨), 개인의 정서적 성숙은 자신의 건강을 보존할 수 있으며, 환경에 대하여 자기 통제력을 갖고, 정서적 긴장을 무해한 방향으로 해소시키며, 사회 제반 현상에 대해 통찰력과 이해력을 갖고, 정서적 표출의 정도와 방식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한상철 등, 2001).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종단적 조사(longitudinal survey) 자료를 이용하여 동일한 대상자의 성장과정을 통한 청소년 자아관의 변화를 흡연상태의 변화와 비교함으로써 청소년의 흡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요인들을 예측하여 이를 고려한 금연예방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충청대학 간호과 조교수(교신저자 E-mail: sye72@chol.com)

## 2. 연구의 목적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단적 조사자료를 통해 동일한 대상자의 2003년과 2004년 총 2년간의 흡연경험 변화를 조사한다.

둘째, 2년간의 흡연경험 변화에 따른 자아존중감, 스스로의 일탈적 자아낙인, 주위사람들의 일탈적 자아낙인, 주위사람에 대한 애착, 자아신뢰감, 공격성, 정서적 조절감, 성역할 정체감 등의 자아관 변화를 분석한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실시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Korea Youth Panel Survey)의 1, 2차년도 자료 중 흡연과 자아관 관련 문항에 대한 답변만을 발췌하였으며, 전국의 중학교 2학년 청소년 중 표본으로 선출된 104개 중학교 학생 3,449명을 대상으로 2003년 10월 27일부터 12월 20일(1차년도)까지와 2004년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2차년도)까지 조사되었다. 이 조사는 대상으로 추출된 학교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조사취지를 설명하였으며, 해당학교의 학생들에게 조사취지 설명 및 협조를 구하고 개인 응답에 따른 비밀 보장에 대한 조사안내 브로셔와 학부모 전달용 공문과 가정통신문을 전달하였고, 학부모에게 전화를 하여 가정통신문 수령 및 숙지여부를 확인하였다.

### 2. 연구 도구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개발한 설문지를 사용했는데, 이 중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분은 흡연경험과 자아관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자아존중감 6문항, 스스로의 일탈적 자아낙인 2문항, 주위 사람들의 일탈적 자아낙인 2문항, 주위 사람들에 대한 애착 2문항, 자아 신뢰감 2문항, 공격성 6문항, 정서적 조절감 3문항, 성역할 정체감 6문항이었다. 각 항목의 문항은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측정되었다. 이 중 자아존중감의 부정적 항목에 대한 3문항은 역문항 처리하였다. 항목별 Cronbach's  $\alpha$  값은 자아존중감은 1차년도 0.73, 2차년도 0.74, 스스로의 일탈적 자아낙인은 1차년도 0.78, 2차년도 0.84, 주위 사람들

의 일탈적 자아낙인은 1차년도 0.86, 2차년도 0.93이었으며, 주위 사람들에 대한 애착은 1차년도 0.84, 2차년도 0.89, 자아 신뢰감은 1차년도, 0.83, 2차년도 0.86, 공격성은 1차년도 0.77, 2차년도 0.78, 정서적 조절감 1차년도 0.65, 2차년도 0.72, 성역할 정체감 1차년도 0.71, 2차년도 0.77 이었다.

### 3. 자료 분석

자료는 PC/SA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2차년도 남녀 중학생별 흡연경험의 변화는 흡연경험별로 네 군으로 분류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각 년차별로 네 군간의 자아관 비교는 ANOVA를 실시하였고, 각 군별로 1차년도와 2차년도간의 자아관 비교는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남자 중학생의 흡연경험의 변화

전체 대상자 중 남자 중학생은 2003년도와 2004년도에 모두 흡연경험이 없는 경우가 82.2%이었으며, 2003년도에 흡연경험이 없으나 2004년도에 흡연경험이 있는 경우가 5.1%이었다. 또한 2003년도에는 흡연경험이 있으나 2004년에 흡연경험이 없는 경우는 6.5%이었고, 2003년도와 2004년 모두 흡연경험이 있는 경우가 6.2%이었다(표 1).

〈표 1〉 연구 대상자 중 남자 중학생의 흡연경험의 변화  
2003년-2004년 명(%)

	흡연경험 없음		전체 2003
	2004	2004	
흡연경험 없음 2003	1,319(82.2)	82( 5.1)	1,401(87.3)
흡연경험 있음 2003	103( 6.5)	100( 6.2)	203(12.7)
전체 2004	1,422(88.7)	182(11.3)	1,604(100)

	= 흡연상태의 변화없음
	= 흡연상태의 개선
	= 흡연상태의 악화

### 2. 여자 중학생의 흡연경험의 변화

전체 대상자 중 여자 중학생은 2003년도와 2004년도에 모두 흡연경험이 없는 경우가 83.3%이었으며, 2003년도에 흡연경험이 없으나 2004년도에 흡연경험이 있는 경우가 3.5%이었다. 또한 2003년도에는 흡연경험이 있으나 2004년에 흡연경험이 없는 경우는 7.0%이었고, 2003년도와 2004년 모두 흡연경험이 있는 경우가 6.2%이었다(표 2).

〈표 2〉 연구 대상자 중 여자 중학생의 흡연경험의 변화  
2003년-2004년 명(%)

	흡연경험 없음 2004	흡연경험 있음 2004	전체 2003
흡연경험 없음 2003	1,337(83.3)	56(3.5)	1,393(86.8)
흡연경험 있음 2003	112(7.0)	100(6.2)	21(13.2)
전체 2004	1,449(90.3)	156(9.7)	1,605(100)

  

□	= 흡연상태의 변화없음
■	= 흡연상태의 개선
■	= 흡연상태의 악화

### 3. 흡연경험변화에 따른 자아관(표 3)

#### 1) 자아존중감

1차년도와 2차년도 각각의 자아 존중감이 네 군 중에서 비흡연군이 가장 높았으며, 흡연유지군에서 가장 낮았고, 1, 2차년도 각각에서 네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001$ ). 비흡연군과 흡연유지군, 흡연중단군은 모두 1차년도보다 2차년도에서 자아존중감이 증가하였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흡연시작군에서는 자아존중감이 증가하였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2) 일탈적 자아낙인

1차년도와 2차년도 각각의 스스로의 일탈적 자아낙인이 네 군 중에서 비흡연군이 가장 낮았으며, 흡연유지군에서 가장 높았고 1, 2차년도 각각에서 네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001$ ). 비흡연군과 흡연유지군, 흡연중단군에서는 모두 1차년도보다 2차년도에서 스스로의 일탈적 자아낙인이 감소하였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p < 0.0001$  ;  $p = 0.0010$  ;  $p = 0.0055$ ), 흡연시작군에서는 스스로의 일탈적 자아낙인이 증가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1차년도와 2차년도 각각의 주위사람들의 일탈적 자아

낙인이 네 군 중에서 비흡연군이 가장 낮았으며, 흡연유지군에서 가장 높았고, 1, 2차년도 각각에서 네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001$ ). 비흡연군과 흡연유지군, 흡연중단군에서는 모두 1차년도보다 2차년도에서 주위사람들의 일탈적 자아낙인이 감소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흡연시작군에서는 주위사람들의 일탈적 자아낙인이 증가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 3) 주위사람들에 대한 애착

1차년도와 2차년도 각각의 주위사람들에 대한 애착은 네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비흡연군과 흡연중단군에서는 1차년도보다 2차년도에서 주위사람들에 대한 애착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p < 0.0001$  ;  $p = 0.0161$ ).

#### 4) 자아신뢰감

1차년도에서의 자아신뢰감은 네 군 중에서 비흡연군이 가장 높았으며, 흡연시작군에서 가장 낮았고, 2차년도에는 흡연시작군에서 가장 높았고, 흡연유지군에서 가장 낮았으며, 1, 2차년도 모두에서 유의하였다( $p = 0.0145$  ;  $p = 0.0342$ ). 흡연시작군은 1차년도보다 2차년도에 자아신뢰감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p = 0.0023$ ).

#### 5) 공격성

1차년도와 2차년도 각각의 공격성은 네 군 중에서 흡연유지군이 가장 높았으며, 비흡연군에서 가장 낮았고 1, 2차년도 각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001$ ).

#### 6) 정서적 조절감

1차년도에서의 정서적 조절감은 비흡연군에서 가장 높고 흡연중단군에서 가장 낮았으나, 네 군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2차년도에서의 정서적 조절감은 흡연유지군에서 가장 높았고, 흡연중단군에서 가장 낮았으며 네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016$ ).

비흡연군과 흡연중단군은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정서적 조절감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p < 0.0001$  ;  $p = 0.0071$ ).

#### 7) 성역할정체감

1차년도에서의 성역할정체감은 흡연시작군에서 가장 높았고, 비흡연군에서 가장 낮았으며, 네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001$ ). 흡연시작군은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성역할정체감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p =$

〈표 3〉 흡연경험변화에 따른 자아관 변화

		흡연경험의 변화				F	p
		가	나	다	라		
자아존중감	1차년도	3.20(0.61)	3.07(0.67)	2.97(0.61)	2.93(0.63)	19.88	<0.0001
	2차년도	3.29(0.62)	3.14(0.68)	3.20(0.60)	3.09(0.62)	9.86	<0.0001
	p	<0.0001	0.3561	<0.0001	0.0007		
스스로의 일탈적 자아낙인	1차년도	1.80(0.72)	2.21(0.88)	2.25(0.91)	2.68(1.03)	107.21	<0.0001
	2차년도	1.73(0.69)	2.36(0.95)	2.06(0.84)	2.42(0.94)	91.62	<0.0001
	p	<0.0001	0.1391	0.0055	0.0010		
주위사람들의 일탈적 자아낙인	1차년도	1.58(0.69)	2.09(0.97)	2.05(0.91)	2.50(1.10)	127.42	<0.0001
	2차년도	1.56(0.69)	2.20(1.02)	1.92(0.84)	2.48(1.05)	127.35	<0.0001
	p	0.4621	0.3559	0.0506	0.8105		
주위사람들에 대한 애착	1차년도	3.05(1.05)	2.82(1.09)	3.10(0.96)	3.04(0.98)	2.43	0.0631
	2차년도	2.87(1.16)	2.87(1.07)	2.87(1.06)	2.94(0.94)	0.23	0.8732
	p	<0.0001	0.6548	0.0161	0.2547		
자아신뢰감	1차년도	3.48(0.72)	3.32(0.82)	3.37(0.71)	3.43(0.82)	3.52	0.0145
	2차년도	3.48(0.73)	3.57(0.79)	3.40(0.85)	3.36(0.78)	2.89	0.0342
	p	0.8406	0.0023	0.5237	0.3084		
공격성	1차년도	2.70(0.69)	2.95(0.72)	2.93(0.76)	3.23(0.68)	45.34	<0.0001
	2차년도	2.72(0.70)	3.10(0.77)	2.89(0.75)	3.16(0.67)	36.81	<0.0001
	p	0.1979	0.0527	0.3516	0.1753		
정서적 조절감	1차년도	3.42(0.77)	3.34(0.85)	3.32(0.76)	3.39(0.82)	1.54	0.2012
	2차년도	3.34(0.79)	3.28(0.92)	3.14(0.82)	3.43(0.81)	5.11	0.0016
	p	<0.0001	0.5651	0.0071	0.5910		
성역할정체감	1차년도	2.75(0.65)	2.94(0.76)	2.83(0.64)	2.89(0.67)	7.01	0.0001
	2차년도	2.74(0.69)	3.10(0.78)	2.89(0.73)	2.87(0.67)	15.74	<0.0001
	p	0.5562	0.0444	0.2002	0.6725		

가 : 비흡연군, 나 : 흡연시작군, 다 : 흡연중단군, 라 : 흡연유지군

0.0444).

#### IV. 논 의

독일의 하이델베르그 어린이 패널 연구에서 11세에서 15세 어린이 1704명을 대상으로 중재군과 대조군을 나누어 중재 후의 금연행동 변화를 관찰하는 종단적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중재를 하지 않은 대조군은 1998년에 비흡연자가 2000년에 흡연자가 된 비율은 14.2%, 비흡연자로 유지 36.5%, 흡연자가 흡연자 유지 10.2%, 비흡연자가 된 경우는 0% 이었다(Alexander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2003년 비흡연자가 2004년에 흡연자가 된 비율은 5.1%, 비흡연자로 유지된 경우는 82.2%, 흡연자가 흡연자로 유지된 경우는 6.2%, 흡연자가 비흡연자가 된 경우는 6.5%, 여학생의 경우 2003년 비흡연자가 2004년에 흡연자가 된 비율은 3.5%, 비흡연자로 유지된 경우는 83.3%, 흡연자가 흡연자로 유지된 경우는 6.2%, 흡연자가 비흡연자가 된 경우는 7.0% 이었다. 독일의 연구에서는 새롭게 흡연을

시작하게 된 비율이 흡연자로 유지된 비율보다 높았고, 본 연구는 새롭게 흡연을 시작하게 된 비율이 흡연자로 유지된 비율보다 낮았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질병관리본부(2008)의 우리나라 청소년 흡연실태 조사에서 학년이 높을수록 흡연률이 높은 것과는 상이한 결과인데, 이는 두 연구의 표본선출방법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선훘과 서경현(2006)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흡연하지 않은 학생이 흡연하는 학생보다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높았는데, 본 연구에서도 비흡연군이 자아존중감 점수가 가장 높았고, 흡연유지군에서 가장 낮았다. 이는 Rosenberg(안차수, 2008에 인용됨)의 정의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정도로 자신을 가치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존중하는 정도가 높아짐으로 건강행동을 유지할 수 있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낙인과 자존감,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박준호와 서영석, 2009) 전문적인 심리적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일반인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의

미하는 주위사람들의 일탈적 자아낙인과,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개인이 스스로 내면화하는 스스로의 일탈적 자아낙인은 모두 전문적 도움 추구행동을 억제 또는 저해한다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비흡연군에서 스스로의 일탈적 낙인과 주위사람들의 일탈적 자아낙인이 가장 낮았으며, 흡연유지군에서 가장 높았고, 흡연중단군에서 주위사람들과 스스로의 일탈적 자아낙인이 1차년도보다 2차년도에서 감소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흡연을 하는 경우 자아낙인의 경향이 높아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문적 도움을 회피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금연프로그램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일탈적 자아낙인의 경향을 낮출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Bowlby의 애착이론은 인간이 특정한 타인과 지속적이며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갖는 경향을 개념화한 것으로(박정녀와 최해림, 2005에서 인용됨), Armsden & Greenberg의 연구에서 부모와 안정된 애착관계를 맺고 있는 청소년들은 자신감이 있고 남한테 도움을 청하는데 매우 적극적이며 힘든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박정녀와 최해림, 2005에서 인용됨). 탁영관과 이은영(2004)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건강효능감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주위사람들에 대한 애착 문항이 부정적인 문항이므로 점수가 낮을수록 애착이 잘 되어 있는 것인데, 비흡연군, 흡연중단군에게 유의하게 애착 점수가 감소한 결과는 도움을 요청하는데 적극적인 애착 성향이 건강행동을 이끄는 데 영향을 준다고 예측할 수 있다.

김희경 등(2004)은 흡연, 흡연중단, 비흡연 청소년을 대상으로 흡연관련 특성 및 사회규범에 대한 신념, 친구와의 차별적 교제, 행위통제 지각, 흡연의도, 흡연거절에 대한 자기 효능에 대한 비교연구를 하였는데, 흡연자가 비흡연자나 흡연 중단자에 비해 흡연유혹을 받을 때 흡연을 거절할 수 있는 자기효능정도가 낮았다. 본 연구에서 흡연유지군에서 2차년도에 자아신뢰감이 가장 낮았는데, 이는 흡연자가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는 자기효능이 낮기 때문에 자아신뢰감이 함께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Berkowitz(박정녀와 최해림, 2005에 인용됨)는 공격성을 관찰 가능한 행동 뿐 아니라 지각된 의도, 행동결과, 행위자의 역할과 지위, 사회적 가치 등의 여러 가

지 요인을 고려하여 심리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해를 끼치는 행위로 정의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흡연유지군에서 공격성이 네 군 중 가장 높아 스스로에게도 공격성을 나타내는 불건강 행위를 지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조절감은 흡연중단군에서 네 군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것은 이에 해당하는 청소년 군이 적절한 프로그램 제공없이 스스로 금연을 결심하고 행동변화를 추구하므로 정서적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어 향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프로그램에서는 정서적 지지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Bem(류은정 등, 2006에 인용됨)의 연구에서 성역할 정체감이란 자기 자신이 얼마만큼 남성적 또는 여성적 성격특성을 소유하는가를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는데, 이 중 양성성 모형은 생물학적 성별에 관계없이 여성적인 특성과 남성적인 특성을 공유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적응에 유리한 것으로 여긴다. 본 연구에서 흡연시작군에서 1, 2차년도 모두 성역할 정체감이 가장 높았고, 비흡연군은 1, 2차년도 모두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는 Kim(류은정 등, 2006에 인용됨)의 양성성 성정체감을 갖는 사람들이 문제해결 능력이 우수하고 높은 자아발달 수준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로 볼 때, 아직 분화되지 않은 성역할 정체감을 보이는 많은 학생들의 성숙한 성역할 정체감 확립을 위해 한쪽 성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있는 교육 환경을 제공하여(류은정 등, 2006), 흡연이라는 불건강 행동에 대한 대처능력을 강화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흡연과 우울 중 어느 것이 선행되는지에 대한 연구(Steuber et al., 2006)에서 흡연과 우울에 대한 측정을 2회 실시한 결과 흡연상태를 네 개의 군으로 나눈 군 중 비흡연자 군에 비하여 흡연시작군은 우울 점수가 1.5배, 흡연중단군은 1.4배, 흡연유지군은 2배의 우울 점수를 나타내어, 흡연은 우울의 예측인자임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비흡연군, 흡연시작군, 흡연중단군, 흡연유지군에서 자아관 관련 모든 요인들에 대한 점수가 비흡연군이 세 군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점수 경향을 보였으며, Steuber 등(2006)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정서적 조절감을 제외하고 흡연중단군, 흡연시작군, 흡연유지군 순으로 자아존중감, 자아신뢰감, 공격성 점수는 높았고, 일탈적 자아낙인, 주위 사람들에 대한 애착, 성역할 정체감 점수는 낮았다. 그러나, 정서적 조절감은 1차년도와 2차년도 모두 비흡연군과 흡연유지군 등

흡연행동에 변화가 없던 군에서 높았고, 흡연행동이 변화된 군에서는 정서적 조절감 점수가 낮아 행동변화를 위해서는 정서적 조절을 위한 지지가 필요함을 제시한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실시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Korea Youth Panel Survey)의 1, 2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자아관의 변화를 흡연상태의 변화와 비교함으로써 청소년의 흡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요인들을 예측하여 이를 고려한 금연예방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전국의 중학교 2학년 청소년 중 표본으로 선출된 104개 중학교 학생 3,449명을 대상으로 2003년 10월 27일부터 12월 20일(1차년도)까지와 2004년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2차년도)까지 조사되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전체 대상자 중 2003년도와 2004년도에 모두 흡연 경험이 없는 경우가 남자 82.2%, 여자 83.3%이었으며, 2003년도에 흡연경험이 없으나 2004년도에 흡연경험이 있는 경우가 남자 5.1%, 여자 3.5%이었다. 또한 2003년도에는 흡연경험이 있으나 2004년에 흡연경험이 없는 경우는 남자 6.5%, 여자 7.0%이었고, 2003년도와 2004년 모두 흡연경험이 있는 경우가 남녀 모두 6.2%이었다.
2. 자아존중감은 비흡연군에서 가장 높았으며, 흡연유지군에서 가장 낮았고, 1, 2차년도 각각에서 네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 스스로의 일탈적 자아낙인은 비흡연군에서 가장 낮았으며, 흡연유지군에서 가장 높았다. 주위사람들의 일탈적 자아낙인이 네 군 중에서 비흡연군에서 가장 낮았으며, 흡연유지군에서 가장 높았고, 1, 2차년도 각각에서 네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4. 주위사람들에 대한 애착은 비흡연군과 흡연중단군은 1차년도보다 2차년도에서 주위사람들에 대한 애착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5. 1차년도에서의 자아신뢰감은 네 군 중에서 비흡연군에서 가장 높았으며, 흡연시작군에서 가장 낮았고, 2차년도에는 흡연시작군에서 가장 높았고, 흡연유지군에서 가장 낮았으며, 1, 2차년도 모두 네 군간의 차이는 유의하였다.
6. 공격성은 흡연유지군이 가장 높았으며, 비흡연군에서 가장 낮았다.

7. 1차년도에서의 정서적 조절감은 비흡연군에서 가장 높고 흡연중단군에서 가장 낮았다. 2차년도에서의 정서적 조절감은 흡연유지군에서 가장 높았고, 흡연중단군에서 가장 낮았으며 네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1차년도와 2차년도 모두에서 비흡연군과 흡연중단군에서는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정서적 조절감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8. 1차년도에서의 성역할정체감은 흡연시작군에서 가장 높았고, 비흡연군에서 가장 낮았으며, 네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흡연시작군에서는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성역할정체감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 청소년의 경우 흡연경험이 발생하기 이전에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프로그램에는 청소년의 올바른 자아관 확립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을 제언한다.

본 연구의 자료는 2003년 시작하여 2008년까지의 추적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2년간의 자료만을 분석하여 자아관에 따라 흡연 경험간 차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과관계 설명이 부족하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6년간의 모든 자료를 분석하여 흡연 경험과 자아관의 인과관계를 파악한 후 정서적 안녕감으로 건강행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흡연예방교육과 금연교육에 자아관 관련 요인을 강화한 내용을 포함시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영미 (2006). 청소년 음주와 흡연에 대한 가족구조와 사회통제적 요인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3(6), 151-178.
- 김현옥, 전미숙 (2007). 청소년의 흡연, 음주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1(2), 217-229.
- 김희경, 최은숙, 문선순, 강현숙, 강희숙, 박연숙, 신연순, 안정선, 조순자 (2004). 흡연 청소년의 신념, 친구교제, 통제력, 흡연 의도 및 자기효능에 대한 비교연구.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1(1), 197-216.
-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 만성병조사팀 (2008).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실태: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결과 2005-2007. *주간건강과 질병*, 1(36).
- 류은정, 서정석, 함미영, 박영례, 문석우, 남범우 (2006). 청소년의 성역할 정체감과 불안, 우울, 자

- 살사고. *정신간호학회지*, 15(2), 136-143.
- 박선영 (2005). 대학생들의 자기관과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연구: 서울과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2(3), 71-92.
- 박정녀, 최해림 (2005).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자동적 사고 및 공격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1), 249-264.
- 박준호, 서영석 (2009). 남자 대학생들의 성역할갈등과 상담의도와 관계: 사회적 낙인, 자기낙인, 상담에 대한 태도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1), 25-48.
- 안차수 (2008). 초등 청소년의 자기통제력과 자아존중감이 인터넷 중독과 예방프로그램의 효능에 미치는 영향. *언론과학연구*, 8(3), 347-380.
- 이선혜, 서경현 (2006). 성별에 따른 고등학생의 흡연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자아개념.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3(2), 29-45.
- 탁영란, 이은영 (2004). 애착과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건강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간호학회지*, 10(1), 89-97.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2005). *2005년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흡연 실태조사*. 서울: 한국금연운동협의회.
- 한국청소년개발원 (2009). *한국청소년패널조사*. <http://archive.nypi.re.kr/bbs/list.np?code=codingbook6&keyfield=subject&keyword=중2>
- 한상철, 조아미, 박성희 (2001). *청소년 심리학*. 서울: 양서원.
- Alexander, S., Ute, M., Lutz, E., & Martina, P. L. (2006). Lack of sustainable prevention effect of the "Smoke-free class competition" on German pupils. *Preventive Medicine*, 42, 33-39.
- Steuber T. L., & Danner F. (2006). Adolescent smoking and depression: Which comes first?. *Addictive Behaviors*, 13, 133-136.

- Abstract -

## Change of Self-Concept of Smoking Experience in Middle School Students

Song, Yeon-Yi\*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identify change in self-concept of smoking experience in middle school students. **Method:** The study was a longitudinal survey design and used only the responses on self-concept and smoking state from the data of the Korea Youth Panel Survey (KYPS). The sample for this study consisted of 3,449 middle school students and the data were collected over a two-year period (2003-2004). **Results:** Self-esteem scores for the first and second year were significantly higher and self-stigma and aggression scores were significantly lower in the non-smoking maintenance group. There was a significant increase in self-esteem scores for students in second year who quit smoking compared to those in first year. There was a significant decrease in scores for attachment to surrounding people and emotional sense of control in second year students compared to those first year for students in the non-smoking maintenance group and the group that quit smoking. Self-intimacy scores were significantly lower in the smoking maintenance group. There was a significant increase in sex-role identity scores in second year students compared to those in first year for students in the group who newly started smoking. **Conclusion:** Findings from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designing appropriate smoking prevention strategies to improve self-constructs related smoking experiences in adolescents.

**Key words :** Smoking, Self-concept, Adolescents, longitudinal study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ung Cheong University